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사진반 동아리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지난 시간에 이어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수동 설정으로 빛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설명한 조리개의 원리부터 복습합시다. (자료 1 제시) 조리개의 구경이 다른 (가)와 (나)가 있는데요. (나)처럼 구경이 큰 조리개를 쓰면 빛의 양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고개를 끄덕이며) 맞습니다. 렌즈를 통해 들어오는 빛의 양이 늘어나 더 밝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나)를 가리키며) 구경이 큰 조리개를 쓰면, 아래 그림처럼 뒤에 있는 배경은 흐릿해도 피사체는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때, 초점이 맞아 보이는 범위인 심도는? ‘얕음’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가)의 빈칸은? (웃으며) 이미 배워서 너무 쉽죠? 당연히 ‘깊음’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이랑 여행 가면 단체로 뛰는 사진, (뛰는 듯한 동작을 하고) 이른바 ‘점프 샷’ 많이 찍으시죠? 오늘은 멋진 점프 샷을 찍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셔터 속도 조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셔터 속도를 빠르게 하면 셔터가 열렸다 닫히는 시간이 짧아지고, 렌즈를 통해 들어오는 빛의 양이 줄어듭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이렇게 찍은 사진은 상대적으로 어둡게 나오겠지요. 대신 움직이는 피사체의 순간적인 이미지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자료 2 제시) 무엇을 찍은 사진이죠? 피사체의 어떤 특징을 드러내려 했나요? (고개를 끄덕이며) 움직이는 피사체를 잘 포착했네요. 셔터 속도를 빠르게 하면 렌즈를 통해 들어오는 빛의 양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이 사진의 경우 태양빛이 조명 역할을 하고 있어 밝기도 충분합니다.

셔터 속도를 느리게 하면 움직이는 피사체의 궤적을 담아내거나 피사체의 움직임을 흐릿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움직임’의 효과를 사진에 부여하는 것이죠. 그런데 셔터 속도가 너무 느리면 빛의 노출이 과도할 수 있습니다. (자료 3 제시) 이때에는 조리개 구경을 조절하여 적당한 노출량을 찾아야 합니다. (자료 3을 가리키며) 왼쪽과 오른쪽처럼 셔터 속도에 따라 조리개의 구경을 조절하면 전체 빛의 노출량을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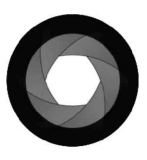


흔히 사진을 빛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더 멋진 사진을 찍고 싶다면, 수동 설정에서 조리개와 셔터 속도를 다양하게 조절하면서 동일한 피사체를 여러 장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연습을 많이 하면 적당한 빛의 노출량을 판단하는 눈도 길러질 것입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동아리 시간에 뵙겠습니다.

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발표 주제를 언급하며 발표를 시작하고 있다.
- ②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며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 ③ 질문을 하고 반응을 확인하며 청중과 상호작용하고 있다.
- ④ 청중이 경험했을 만한 상황과 연결 지어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⑤ 발표 내용을 요약한 후 다음 시간 내용을 예고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2. <보기>는 위 발표에 활용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자료 1>		<자료 2>
(가)	(나)	
		
F 16	F 2.8	
		<자료 3>
심도가 ( )	심도가 ( )	빛의 노출량을 비슷하게 유지하려면
		셔터 속도 느림 ← 셔터 속도 빠름
		밝아짐 ← 어두워짐
		+ 어두워짐 ← 밝아짐
		조리개 구경 축소 ← 조리개 구경 확대

- ① <자료 1>은 지난 시간의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는 데 활용되었군.
- ② <자료 2>는 피사체의 순간적인 이미지를 담은 사진의 사례로 활용되었군.
- ③ <자료 3>은 빛의 노출이 과도할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활용되었군.
- ④ <자료 1>은 조리개를 조절하면 달라지는 점을 설명하는 데, <자료 2>는 셔터 속도를 빠르게 했을 때의 효과를 설명하는 데 활용되었군.
- ⑤ <자료 2>와 <자료 3>은 조리개와 셔터 속도의 조절이 빛의 노출량 확보보다 피사체의 포착을 위한 것임을 설명하는 데 활용되었군.

3. 다음은 위 발표를 들은 학생의 반응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스마트폰 카메라의 수동 설정에서 셔터 속도를 조절해 보려고 하니, 상황에 따라 셔터 속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잘 몰랐던 원리를 설명해 준 것은 좋았지만, 실제로 사진을 찍을 때 상황별로 적절한 셔터 속도가 얼마인지도 알려 주었더라면 좋았겠어.

- ① 발표에서 아쉬운 부분을 떠올려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
- ② 듣기 목적을 고려하며 발표 자료의 신뢰성을 판단하였다.
- ③ 발표에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필요에 따라 구분하였다.
- ④ 자신이 이해한 내용 중 잘못된 정보는 없는지 점검하였다.
- ⑤ 발표의 내용 구성 방식 중 잘된 부분을 찾아서 정리하였다.

[4~5] 다음은 교지에 실을 글을 쓰기 위한 인터뷰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 안녕하세요? □□고 교지편집부 기자 ◇◇◇입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님의 음악 활동을 교지 특집호에 실으려고 합니다. 직접 찾아뵙고 인터뷰하게 되니 떨리네요.

가수: 편하게 물어보세요. 선배라고 불러도 돼요.

학생: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질문하기 전에 하나만 여쭙 볼게요. 저희 반 ○○○ 선생님께서 선배님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다던데, 참 좋은 분이시죠?

가수: 그럼요. 그분 덕분에 제 음악적 재능도 발견하고 자신감도 키울 수 있었어요. 후배님도 ○○○ 선생님께 배우고 있다니 한결 가까워진 느낌이네요.

학생: 저도요, 선배님. 이제 음악 활동에 관해 질문 드릴게요. 선배님께서 진행하시는 프로젝트 공연 『와!』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데,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가수: 『와!』는 즉흥과 소통을 테마로 하는 길거리 공연이에요. 시간이나 장소를 공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달 한 번씩 기습적으로 길거리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날 모인 관객들과 소통하며 공연 프로그램도 유연하게 진행하고요.

학생: 그렇군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선배님 하면 다들 떠올리는 게 ‘음원 대장’이잖아요. 많은 일정으로 바쁘실 텐데, 따로 길거리 공연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가수: 초기에는 관객 열 명 앞에서도 기쁘게 노래했는데 어느 순간 관객이 늘고 음원 순위가 높아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와!』를 시작하게 되었죠.

학생: 길거리 공연을 통해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가수: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을 얻고 있어요. 길거리 공연을 통해 가까운 곳에서 만나는 관객들의 반응은 제게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자극을 줘요.

학생: 그런 점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나요?

가수: 관객들과 즉흥적으로 노래를 만들어 부른 적이 있어요. 순간의 느낌을 가사에 담아 멜로디를 붙여 같이 부르는데 전율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 정말 행복합니다.

학생: 저도 그 자리에 함께했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 『와!』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가수: 기습 공연인 만큼 진행에 관련된 건 비밀이에요. 살짝 귀띔해 드리자면, 이번 달에는 □□고 후배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학생: 엄청난 소식인데요.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수: 감사합니다.

4. 학생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찾아온 목적을 밝히며 인터뷰를 시작하고 있다.
- ② 자기 경험을 언급하여 인터뷰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공유하는 요소를 언급하여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④ 상대방의 답변 일부를 재진술하며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 ⑤ 상대의 말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지 답변을 요청하고 있다.

5. 다음은 위 인터뷰를 바탕으로 학생이 쓴 글의 도입부이다. 학생이 활용한 글쓰기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자랑스러운 선배, 가수 △△△를 만나다 즉흥과 소통의 세계로 『와!』

‘음원 대장’, ‘콘서트 3초 매진’, ‘가요대상 5관왕’. 모두 우리 학교 선배인 가수 △△△를 설명하는 말이다. 지난 2월 그의 작업실에서 진행된 인터뷰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프로젝트 『와!』에 대한 이야기를 그의 말로 직접 들어보았다.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한 깜짝 놀랄 만한 선물도 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아래 인터뷰 전문을 살펴보자.

- ① 인터뷰에서 알게 된 프로젝트의 계기를 언급하여 현재 음악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② 인터뷰에서 가수가 한 말 중 일부를 글의 부제에 활용하여 프로젝트의 성격을 전달한다.
- ③ 인터뷰 시기와 장소를 언급하며 인터뷰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한다.
- ④ 인물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여 인터뷰 대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⑤ 인터뷰에서 알게 된 내용을 암시하여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한다.

16~기 다음은 작문 과제에 따라 학생들이 작성한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일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글을 써 보자.

[학생의 글]  
(가) 학생 1  
체력을 기르기 위해 달리기를 시작했다. 처음 달리기를 했을 때는 너무 힘들었다. 마음만 앞서서 무작정 속도를 높였고 결국 목표했던 거리를 달리지도 못한 채 지쳐서 주저앉았다. 거친 숨을 내쉬면서 생각했다. 무엇이 그렇게 급했던 것일까? 생각해 보면 나는 평소에도 무언가를 할 때 급한 마음에 처음부터 모든 힘을 쏟다가 금방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현재의 내 실력과 상관없이 마음만 앞서서 무리한 계획을 세웠고 며칠 지나지 않아 그만둔 적이 많았다. 공부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나에게 맞는 속도를 찾아 꾸준히 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나) 학생 2  
나는 어떤 일이든 혼자 힘으로 해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번에 참가한 마라톤 대회 출발선에 섰을 때도 같은 생각이었다. 달리기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외로운 싸움이라는 생각을 하며 달리기 시작하였다. 호흡이 가빠지고 다리가 무거워져서 잠시 멈춰 있을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났다. 그 사람들은 힘들면 함께 달리자고 하였고, 계속 격려의 말을 나누면서 서로 발을 맞추어 달리다 보니 힘듦은 어느새 사라지고 즐거움만 남았다. 그동안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해야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했을 때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6. (가)와 (나)의 글쓰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 모두 묻고 답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글을 전개하였다.
  - ② (가)와 (나) 모두 다양한 경험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 ③ (가)는 공간의 이동을 중심으로, (나)는 시간의 흐름을 중심으로 글을 전개하였다.
  - ④ (가)는 깨달은 점을 글의 도입부에서 강조하였고, (나)는 깨달은 점을 정리하며 글을 마무리하였다.
  - ⑤ (가)는 경험에서 깨달은 점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여, (나)는 경험 전후의 생각을 대비하여 서술하였다.

7. <보기>는 (가)와 (나)를 읽은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A: 친구들이 쓴 글을 읽어 봤어? 소감이 어때?  
B: ‘학생 1’과 ‘학생 2’가 같은 소재를 다루었지만 느낀 점은 다르다는 게 인상 깊었어.  
A: 나도 그래. 그런데 ‘학생 1’의 글에서 ㉠ ‘학생 1’은 자신에게 맞는 속도를 찾아야 한다고 했는데 때로는 자신의 한계를 넘을 필요도 있지 않을까?  
B: 네 말도 맞아. 하지만 ‘학생 1’은 지나치게 무리해서 역효과가 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 아닐까? ㉡ 나는 종종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리해 보곤 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학생 1’의 생각에도 일리가 있어.  
A: ‘학생 2’의 글은 어떻게 생각해?  
B: 약간은 아쉬운 느낌이 있어. ㉢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이 더 긴밀하게 연결되려면 경험을 더 구체적으로 썼어야 하지 않을까?  
A: 내 생각은 조금 달라. ㉣ 힘들어 하던 모습이 호흡이나 다리 상태를 언급한 부분에서 잘 드러나 있고, 달리는 과정도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고.  
B: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 같은 소재를 다룬 글이 서로 다른 것처럼, 같은 글을 읽은 너와 나도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흥미로워. 앞으로도 어떤 글을 읽고 나면 다른 사람과 소감을 나누며 더 깊이 있는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해야겠어.

- ① ㉠: ‘학생 1’의 글에 나타난 생각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학생 1’의 글에 대한 공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학생 2’의 글에서 일부를 인용하여 아쉬운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④ ㉣: ‘학생 2’의 글에 대해서 상대방과 다른 의견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언급하고 있다.
- ⑤ ㉤: ‘학생 1’과 ‘학생 2’의 글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8. 다음은 구청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에 올리기 위해 학생이 작성한 건의문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학생 □□□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우리 지역 고령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기기 사용 교육을 건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근 지역과 달리 우리 지역에는 고령층 어르신들께서 많이 사십니다. 그런데 최근 키오스크(kiosk, 무인 정보 단말기)를 이용하여 주문을 하고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거나 표를 예매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얼마 전 저희 할머니께서도 친구분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가셨다가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이 ㉠ 있었다고 합니다.

키오스크 같은 디지털 기기는 ㉡ 사용자에 편의를 위해 도입되었을 것입니다. ㉢ 저는 키오스크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화면에 나타난 전체적인 메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편리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이미 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한 여러 좋은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기기 사용 교육 기회도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르신들께서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이 ㉣ 해결될수록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것이며, 문화생활이나 여가 생활에서도 디지털 기기 활용이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제 건의를 받아들여 주신다면, 우리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의 삶은 ㉤ 윤택합니다. 이에 제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 윗글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떠올린 생각이다. 윗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인사말을 쓰고 건의 주체를 밝혀야겠어.
  - ②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를 들어야겠어.
  - ③ 고령층이 많다는 우리 지역의 특성을 언급해야겠어.
  - ④ 구청에서 진행 중인 교육 사업의 문제점을 밝혀야겠어.
  - ⑤ 글의 끝부분에 사회 변화에 대한 전망을 제시해야겠어.

9. <보기>는 윗글을 보완하기 위해 찾은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가) 정책 전문지 기고문  
리가(Riga) 장관 선언은 유럽연합의 정보통신 분야 장관들이 모여 중대한 정책적 전환을 표명한 것이다. 이 선언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이 보건, 의료, 경제적·정치적 참여, 생산성 증가, 기회의 균등 등 개인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재이자 범용 기술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지 못하면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나) 전문가 인터뷰  
“사람이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고령층을 위한 교육은 맞춤형으로 실시해야 그 효과가 높습니다. 반복되는 질문에도 친절하게 응대해 줄 수 있는 교육 여건 마련이 중요한데, 집합 교육보다는 소그룹 혹은 일대일 교육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이론 위주의 수업보다는 현장에 나가 직접 체험하게 하는 교육이 효과적입니다.”

- ① (가)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를 활용하여 해결 방안을 구체화해야겠군.
- ② (가)를 활용하여 해결 방안의 기대 효과를 밝히고, (나)를 활용하여 문제의 유형을 분류해야겠군.
- ③ (가)를 활용하여 해결 방안이 지닌 한계를 보완하고, (나)를 활용하여 문제의 실태를 보여 주어야겠군.
- ④ (가)를 활용하여 해결 방안들 간의 우선순위를 밝히고, (나)를 활용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해야겠군.
- ⑤ (가)를 활용하여 문제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나)를 활용하여 해결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강조해야겠군.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높임 표현이 부적절하므로 ‘계셨다고’로 고쳐야겠어.
  - ② ㉡: 조사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사용자의’로 고쳐야겠어.
  - ③ ㉢: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삭제해야겠어.
  - ④ ㉣: 어미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해결되도록’으로 고쳐야겠어.
  - ⑤ ㉤: 앞 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윤택해질 것입니다’로 고쳐야겠어.

[11~1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 음운이 다른 음운의 속성을 닮아 가는 음운 현상을 ‘동화’라고 한다. 이때 동화를 일으키는 음운을 ‘동화음’, 동화음을 닮아 가는 음운을 ‘피동화음’이라고 한다. 동화 현상의 하나인 구개음화는, 경구개가 아닌 위치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단모음 ‘ㅣ’나 반모음 ‘ㅣ̣’ 앞에서 경구개음으로 바뀌는 음운 현상으로, 피동화음인 자음이 동화음 ‘ㅣ’나 반모음 ‘ㅣ̣’가 경구개 부근에서 발음되는 속성을 닮아 가는 것이다.

구개음화는 피동화음의 종류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피동화음이 ‘ㄷ, ㅌ, ㅌ’인 경우는 ‘ㄷ-구개음화’, 피동화음이 ‘ㄱ, ㅋ, ㆁ’인 경우는 ‘ㄱ-구개음화’로 부른다. 현대 국어에서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는 구개음화는 ‘ㄷ-구개음화’ 중 다음 두 가지이다. 우선 음절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단모음 ‘ㅣ’로 시작하는 조사나 접사 같은 형식 형태소와 결합하여 ‘ㅌ, ㄷ’으로 변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음절 끝소리가 ‘ㄷ’이고 뒤에 접사 ‘-히-’가 올 때 ‘ㄷ’과 ‘ㅎ’이 축약되어 ‘ㅌ’이 되고, 이것이 구개음 ‘ㅌ’으로 되는 경우이다.

과거에는 ‘ㄱ-구개음화’도 일어났다. 방언에서 ‘기름’이 ‘지름’으로 변화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에는 구개음화가 형태소 내부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으며, 이는 근대 국어 시기에 활발하게 일어났다.

그런데 현대 국어에는 ‘마디’, ‘견디다’와 같이 과거에 구개음화가 일어났을 법한데 그렇지 않은 단어들도 남아 있다. 이런 단어들은 ‘ㄷ’ 뒤에 오는 모음이 원래 ‘ㅣ’가 아닌 다른 모음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예를 들어 ‘마디’는 과거에 ‘마디’였는데, 형태소 내부에서의 구개음화가 사라진 후에 ‘ㄱ’이 ‘ㅣ’로 바뀌었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채로 남겨진 것이다.

과거에 일어났던 구개음화와 관련하여 잘못된 교정이 일어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문헌상으로 ‘김치’의 과거 형태는 ‘딴치’였는데 구개음화가 일어난 이후 ‘김치’로 나타난다. 그런데 언중이 구개음화가 일어난 형태를 원래 형태로 교정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원래 형태를 잘못 생각하여 ‘김치’의 형태로 교정하게 되고 이것이 현재의 ‘김치’가 되었다. [A]

11. 윗글을 바탕으로 현대 국어의 표준 발음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같이’를 [가치]로 발음하는 이유는 피동화음이 ‘ㄱ’인 경우이기 때문이다.
- ② ‘많지만’을 [만치만]으로 발음하는 이유는 동화음이 반모음 ‘ㅣ̣’인 경우이기 때문이다.
- ③ ‘만이’를 [마디]로 발음하지 않는 이유는 구개음화를 일으키는 동화음이 없기 때문이다.
- ④ ‘결으로’를 [겨츠로]로 발음하지 않는 이유는 두 형태소가 결합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 ⑤ ‘끝인사’를 [끄친사]로 발음하지 않는 이유는 뒤에 결합하는 형태소가 형식 형태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12.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딴치’가 ‘김치’로 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구개음화는 ‘ㄷ-구개음화’에 해당한다.
- ② ‘딴치’가 ‘김치’로 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구개음화는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났다.
- ③ ‘김치’의 ‘치’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치’의 모음이 본래 ‘ㅣ’였기 때문이다.
- ④ ‘김치’가 ‘김치’로 변하는 과정에서 언중은 ‘김치’를 ‘ㄱ-구개음화’가 일어난 형태라고 생각했다.
- ⑤ ‘김치’의 본래 형태가 ‘딴치’였고 형태소 내부에서의 ‘ㄷ-구개음화’가 사라진 후에 ‘ㄱ’이 ‘ㅣ’로 변화했다면 구개음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13.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음<sup>1</sup> 「어미」(‘ㄷ’을 제외한 받침 있는 용언의 어간이나 어미 ‘-었-’, ‘-겠-’ 뒤에 붙어) 그 말이 명사 구실을 하게 하는 어미.

- 그는 그 말을 믿었음이 분명하다.
- 나는 그의 판단이 옳음을 믿는다.

-음<sup>2</sup> 「접사」(‘ㄷ’을 제외한 받침 있는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 그는 나의 믿음을 저버렸다.
- 그는 서랍에서 종이 한 묶음을 꺼냈다.

- ① ‘-음<sup>1</sup>’은 선어말 어미와 결합할 수 있군.
- ② ‘-음<sup>1</sup>’이 붙은 말은 본래의 품사를 유지하는군.
- ③ ‘-음<sup>2</sup>’가 붙은 말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군.
- ④ ‘-음<sup>1</sup>’은 ‘-음<sup>2</sup>’와 달리 뒤에 격조사가 올 수 있군.
- ⑤ ‘-음<sup>2</sup>’는 ‘-음<sup>1</sup>’과 달리 명사절을 만들 수 없군.

14.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만을 ㉡~㉤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선생님 : 합성어 중에는 어근의 배열이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에 맞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체언+체언’, ‘용언의 관형사형+체언’, ‘용언의 연결형+용언’ 등의 형태는 통사적 합성어라 하고, ‘용언의 어간+체언’, ‘부사+체언’, ‘용언의 어간+용언의 어간’ 등의 형태는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에 맞지 않으므로 ㉠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하지요. 외국어나 외래어를 대체하는 순화어에서도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가 발견됩니다. 그럼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볼까요?

○ 핫 플레이스	⇨ 뜨는곳	.....	㉡
○ 카메오	⇨ 깜짝출연	.....	㉢
○ 마인드맵	⇨ 생각그물	.....	㉣
○ 캐노피	⇨ 덮지붕	.....	㉤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15. <보기>의 주동문 ㉠~㉣을 탐구 과정에 따라 분류하고자 한다. A~C에 해당하는 사례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 기 >**

사동문은 주어와 다른 대상을 동작하게 하거나 특정한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문장을 가리킨다. 파생적 사동문은 주동문의 서술어로 쓰인 용언의 어간을 어근으로 삼아 사동 접미사가 붙어 이루어진 문장이며, 통사적 사동문은 주동문의 서술어로 쓰인 용언의 어간에 ‘-게 하다’가 붙어서 이루어진 문장이다.

**[주동문]**

㉠ 물통에 물이 가득 찼다.  
 ㉡ 그는 한여름에 더위를 먹었다.  
 ㉢ 아이가 방바닥에 흩어진 구슬을 모았다.

**[탐구 과정]**

사동문으로 바꿀 수 있는가?

예                      아니오

---

파생적 사동문으로 바꿀 수 있는가?     [ A ]

예                      아니오

[ B ]                      [ C ]

- |   |                 |                 |                 |
|---|-----------------|-----------------|-----------------|
|   | <b><u>A</u></b> | <b><u>B</u></b> | <b><u>C</u></b> |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⑤ | ㉢               | ㉡               | ㉠               |

[16~2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도움이 필요한 할머니를 외면하고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늦더라도 할머니를 돕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대답하는 가치들 중 어떤 가치를 선택해야 하는가의 문제, 즉 도덕적 갈등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다.

먼저 ㉠ 도덕적 원칙주의자는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선형적인 도덕 법칙이 존재한다고 본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도덕적 원칙주의자는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주관적 욕구나 개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말고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하라고 말한다.

도덕적 원칙주의는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신뢰하고 이를 통해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이란 무엇인가를 ㉡ 규명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어느 사회에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선형적인 도덕 법칙이 존재한다면, 도덕적 갈등은 나타나지 않거나 나타나더라도 쉽게 해결이 돼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 도덕적 자유주의자는 도덕적 원칙주의자와 달리 선형적인 도덕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대신 개인들이 합의를 통해 만든 상위 원리를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편협한 입장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공평한 지점에서 상위 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상위 원리를 통해 법과 같은 현실적인 규범이나 지침을 만들면 사람들이 이를 ㉣ 준수함으로써 도덕적 갈등이 해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 자유주의자는 공정한 형식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도덕적 자유주의는 인간의 자율성을 ㉤ 보장하면서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만들어 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상위 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또한 합의를 통해 상위 원리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규범과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도덕적 다원주의자는 해결 불가능한 도덕적 갈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도덕적 가치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통일된 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가령 자유나 평등처럼 가치가 본래 지닌 내재적 속성이 상충되어 어느 하나를 추구하다 보면 다른 것을 상대적으로 덜 중시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으며, 어떤 조건에서는 우선시되는 가치가 다른 조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도덕적 다원주의자는 중재를 통해 타협점을 ㉠ 모색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가령 정의라는 가치가 중요하더라도 특정 갈등 상황에서 배려라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면 타협을 통해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또한 타협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도덕적 가치들 외에 새로운 가치를 생성할 수도 있다고 본다. 도덕적 다원주의자는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 어떤 가치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보다 갈등 당사자 간의 인간관계가 ㉢ 훼손되지 않는 것을 중시한다. 갈등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도덕적 가치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한 공동체 안에서 상호 작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구성원들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도덕적 다원주의는 도덕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갈등 상황에서 따라야 할 단일 기준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풍부한 기지와 창조력을 발



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도덕적 다원주의는 도덕적 갈등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인식을 바꾸었다는 의의가 있다.

16.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도덕적 갈등 문제에 대한 상반된 관점을 제시하고 절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② 도덕적 갈등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면서 그 한계와 의의를 밝히고 있다.
- ③ 도덕적 갈등 문제에 대한 관점을 유형별로 나누면서 그 분류 기준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 ④ 도덕적 갈등 문제에 대한 관점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과정을 서술하고 새로운 관점이 나타날 것을 전망하고 있다.
- ⑤ 도덕적 갈등 문제에 대한 관점이 분화된 배경을 제시하고 관점들이 혼재하게 될 경우 나타날 문제점을 서술하고 있다.

17.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어느 사회에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도덕 법칙이 있다고 본다.
- ② ㉡은 상위 원리를 통해 현실적인 규범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 ③ ㉠은 ㉡과 달리 도덕적 가치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은 ㉠과 달리 선형적인 도덕 법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 ⑤ ㉠과 ㉡ 모두 도덕적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18. [가]의 '도덕적 다원주의자'의 관점에서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A는 친구 B에게 1,000만 원을 빌렸지만 형편이 어려워 B에게 돈을 갚지 못했다. 이에 B는 소송을 제기했다. ㉠ 판사 C는 A의 상황이 딱하다고 생각했으나 A가 법을 어긴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A가 B에게 돈을 갚으라고 판결하였다.

한편, 판사 C의 친구 D는 C에게서 1,000만 원을 빌렸지만 형편이 어려워 C에게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 이에 ㉡ C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고민했으나, 친구의 어려움을 배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단념했다.

- ① ㉠과 ㉡에서 C가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지표가 있어야 한다.
- ② ㉠과 ㉡에서 C가 서로 다르게 판단한 것은 조건에 따라 가치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 ③ ㉠에서 C가 우선시한 가치와 ㉡에서 C가 우선시한 가치는 동일하다.
- ④ ㉠에서 C는 통일된 지표에 따라 판단하였고, ㉡에서 C는 조건에 따라 판단하였다.
- ⑤ ㉠에서는 두 가치 간의 내재적 속성이 상충되지만, ㉡에서는 두 가치 간의 내재적 속성이 상충되지 않는다.

1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웃에 살고 있는 갑과 을은 공공장소에 CCTV 설치를 확대해야 하는가를 두고 갈등하고 있다. 갑은 CCTV가 없는 곳에서 범죄를 당한 적이 있다며, 공공의 안전이라는 가치를 위해 CCTV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을은 CCTV로 인해 개인정보가 노출된 적이 있다며, 사생활 보호라는 가치를 위해 CCTV 수를 늘리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 ① 도덕적 원칙주의자는 CCTV 설치 확대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는 데 갑이 범죄를 당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겠군.
- ② 도덕적 자유주의자는 공정한 절차에 따른 합의에 의해 CCTV 설치 확대가 결정된다면 을은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겠군.
- ③ 도덕적 자유주의자는 CCTV로 인해 개인정보가 노출된 적이 있는 을의 입장이 고려되어 한다는 점에서 갑이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겠군.
- ④ 도덕적 다원주의자는 갑과 을이 CCTV 설치 확대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겠군.
- ⑤ 도덕적 다원주의자는 갑과 을이 CCTV 설치 확대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둘 사이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겠군.

20.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어떤 사실을 자세히 따져서 바로 밝힘.
- ② ㉡: 전례나 규칙, 명령 따위를 그대로 좇아서 지킴.
- ③ ㉢: 잘 보호하여 기름.
- ④ ㉣: 일이나 사건 따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마리를 더듬어 찾음.
- ⑤ ㉤: 험거나 깨뜨려 못 쓰게 만들음.

[21~24]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의 결심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살림을 떠났고 말리라는 것이었다.

살림이라야 가진 논밭이 없고, 몇 대젠진 몰라도 하늘에서 떨어져서는 첫 동네라는 안악골 꼭대기에서 그중에서도 제일 외따로 떨어져 있는 오막살이를 근거로 하고 화전이나 파먹고 숯이나 구워 먹고 뒷과 함정을 놓아 산짐승이나 잡아먹던 구차한 살림이었다.

그래도 자기 아버지 대에까지는 굶지는 않고 남에게 비력질은 하지 않고 살아왔다. 그렇던 것이 언제 누구라 임자로 나서 팔아먹었는지 둘째가 백 리도 더 될 큰 산을 삼정회사에서 샀노라고 나서 가지고는 부대\*를 파지 못한다, 숯을 허가 없이 굶지 못한다, 또 경찰\*에서는 멧돼지 함정이나 여우 텃은 물론이요, 꿩 장애나 옥누 같은 것도 허가 없이는 못 놓는다 하고 금하였다.

요즘 와서 안악골 동네는 산지기와 관청에서 이르는 대로만 지키자면 봄여름에는 산나물이나 뜯어 먹고, 가을에는 머루 다래나 하고 도토리나 주워다 먹고 겨울에는 곤충류와 같이 땅속에 들어가 동면이나 할 수 있으면 상책이게 되었다.

그러나 큰 산 속 안악골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장군이네부터도 갑자기 멧돼지나 노루와 같이 초식만을 할 수가 없고 나비나 살무사처럼 삼동 한 철을 자고만 배길 수도 없었다. 배길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도 재주가 없어서였다.

그래서 안악골 사람들은 관청의 눈이 동똥 때문인지 엄밀하게 따지려면 늘 범죄의 생활자들이었다.

안악골서 멧돼지와 노루의 함정을 파놓은 것이 이 장군이 한 사람만은 아니었다. 그날 하필 사냥을 나왔던 순사부장이 빠진다는 것이 알고 보니 여러 함정 중에 장군이 파놓은 함정이었다.

그래서 장군은 쫓겨다니는 순사부장의 뒤를 따라 그의 목직한 총을 메고 경찰서로 들어왔고 경찰서에 들어와선 처음엔 귀때기까나 맞았으나 다음날로부터는 저희 집 관솔불이나 상사발에 대어서는 너무나 문화적인 전기등 밑에서 알미늬 뽕에다 쌀밥만 먹고 지내다가 스무 날 만에 집으로 나오는 길이였다.

[중간 부분의 내용] 경찰서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던 장군은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고 발걸음이 무거워짐을 느낀다.

철독을 넘어서 안악골로 올라가는 길썰에 들면 되다 만 방앗간이 하나 있다. 돌각담으로 담만 둘러쌓고 확\*도 아직 만들지 않았고 풍채도 없다. 그러나 물 받을 자리와 물 빠질 보통\*은 다 짜어 놓았고, 제법 주머니방아는 못 되더라도 한참 만에 한 번씩 뒷박질하듯 하는 통방아채 하나만은 확만 파 놓으면 물을 대어 봐도 좋게 손이 떨어진 것이었다.

장군은 가을에 들어 이것으로 쌀되나 얻어먹어 볼까 하고 여름내 보통을 낸다 돌각담을 쌓는다, 빛을 마흔 냥 가까이 내어 가지고 방아채 채목을 사고 목수 품을 들이면서 거의 끝을 마쳐 가는데 소문이 나기를, 새 술막 장풍언네가 발동기가 무슨 조화방안가 하는 걸 사온다고 떠들어 들 대었다. 그리고 발동기는 하루 쌀을 몇 백 말도 쪼으니까, 새 술막에 전일부터 있던 물방아도 세월이 없으리라 전하였다.

알고 보니 아닌 게 아니라 장풍언네는 아들이 서울 가서 발동기를 사오고 풍채를 사오고, 그리고는 미리부터 쪼는 샅이 물방아보다 적다는 것, 아무리 멀어도 저희가 일꾼을 시켜 쪼을 것을 가져가고 쪼어서는 배달까지 해 준다는 것을 광고하였다. 이렇게 되고 보니 벼 두어 섬만 쪼으려도 밤늦도록 관솔불을 켜가지고 북새를 놀게 더디기도 하려니와, 까부름\* 새를 모두 곡식 임자가 가서 거들어 줘야 되는 물방아로 찾아올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이래서 장군은 여름내 방아터를 잡느라고 세월만 허비하고, 게다가 빛까지 진 것을 중도에 손을 떼고 내어던지지 않을 수 없이 된 것이다.

장군은 걸음을 멈추고 붓도랑 낸 데 물이 고인 것을 한참이나 서서 내려다보았다. 웅덩이라 바람 한 점 스치지 않는 수면은 거울같이 맑고 고요하여 내려다보는 장군의 얼굴이 잔주름 하나 없이 비치었다.

누가 불러 보아도 듣지 못할 것처럼 꿈꾸듯 물만 내려다보고 섰던 장군은 한참 만에 슬그머니 허리를 굽혔다. 그리고 손을 더듬더듬하여 커다란 몽우리돌을 하나 집었다.

[A] 그리고는 다시 허리를 펴서 물을 내려다보았다. 물속에는 잠긴 자기 얼굴을 간지르는 듯 어찌 생각하면 자기를 비웃는 듯도 한 뵤작뵤작하는 송사리 떼가 알른거리고 몰려다니었다.

철버덩!  
장군이 손에 잡히었던 몽우리들은 거울 같은 물을 깨뜨리고 가을 산기슭의 적막을 흔들어 놓았다. 그러나 그의 돌망\*에 맞고 입이 광주리만큼씩 찢어지며 올려다보는 것은 제 얼굴의 그림자뿐, 송사리 떼는 한 마리도 뜨지 않았다.

- 이태준, 「촌뜨기」 -

\*부대: 주로 산간 지대에서 풀과 나무를 불살라 버리고 그 자리를 파 일구어 농사를 짓는 밭.  
\*확: 방앗공이로 쪼을 수 있게 돌절구 모양으로 우묵하게 판 돌.  
\*보통: 붓둑. 보를 둘러쌓은 둑.  
\*까부름: 키를 위 아래로 흔들어 곡식의 티나 검불 따위를 날리는 일.  
\*돌망: 돌이나 땅치 등으로 고기가 숨어 있을 만한 물속의 큰 돌을 세게 쳐서 그 충격으로 고기를 잡는 일. 또는 그렇게 치는 돌.

21.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과장된 반응을 통해 비극적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다.
- ② 인물이 떠올린 상상 속 장면을 통해 인물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습관적 행위를 중심으로 인물을 묘사하여 인물의 개성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사건과 관련된 인물의 의문점을 나열하여 작중 상황에 대한 독자의 비판을 유도하고 있다.
- ⑤ 인물과 관련된 사건의 추이를 요약적으로 서술하여 인물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22. **안악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때는 ‘가진 논밭’이 없어도 ‘굶지는 않’았던 곳이다.
- ② ‘삼정회사’의 출현으로 생활의 변화가 일어난 곳이다.
- ③ ‘산지기’나 ‘관청’의 통제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곳이다.
- ④ ‘경찰’에 저항하기 위한 ‘여러 함정’이 존재하는 곳이다.
- ⑤ 생계유지를 위한 기존의 방식이 ‘범죄’가 될 수 있는 곳이다.

2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에는 근대화 시기의 과도기적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근대화된 방식의 삶은 당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성취 욕구를 자극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좌절하는 사람도 있었다. 작품의 제목인 ‘촌뜨기’는, 과도기적 사회에서 제 나름의 방식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지만 시대적 흐름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까닭에 실패하게 되는 인물의 처지를 드러낸다.

- ① 장군이가 ‘순사부장의 뒤를 따라 그의 목직한 총을 메고’ 가는 것은 근대화된 방식에 따르려는 욕구가 자극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군.
- ② 장군이가 ‘빛을 마흔 냥 가까이 내어서 ‘방앗간’을 지은 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제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군.
- ③ ‘장풍언네’가 ‘서울 가서 발동기를 사오고 풍채를 사오’는 것은 근대화 시기에 적응해 가는 모습으로 볼 수 있군.
- ④ ‘까부름 새를 모두 곡식 입자가 가서 거들어 줘야 되는’ 방식의 ‘방앗간’을 차리려고 한 것은 장군이가 시대적 흐름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군.
- ⑤ 장군이가 ‘세월만 허비’한 채 ‘중도에 손을 떼고 내어던지’게 된 것은 근대화된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촌뜨기’로 머물게 된 상황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군.

24. <보기>를 참고하여 [A]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문학 작품에서 ‘물’을 바라보는 행위는 물에 비친 상(像)을 통한 자기 인식과 관련된다. 물에 비친 상은 주체가 자신의 내면이나 자신과 관련된 사태의 본질을 스스로 깨닫도록 한다.

- ① ‘거울같이 맑고 고요’한 ‘수면’은 사태의 본질을 깨달은 이후의 평온함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② ‘꿈꾸듯 물만 내려다보고 섰던’ 것은 자기 인식이 중단된 순간의 상실감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 ③ ‘철버덩!’ 하는 소리를 내며 ‘몽우리돌’이 떨어진 것은 자기 인식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데 대한 분노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입이 광주리만큼씩 찢어져 보이는 ‘제 얼굴의 그림자’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 ⑤ ‘한 마리도 뜨지 않’은 ‘송사리 떼’는 내면에 대한 깨달음을 스스로의 힘으로 얻는 것이 불가능함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25 ~ 2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호왕이 또한 계책을 생각하고 대장 겸한을 불러 말하기를,  
 “철기 일만을 거느리고 중국 도성에 들어가 성중을 엄살하면 응당 구완병을 청할 것이니 대성을 치운 후에 명제를 사로잡아 대군을 함세하여 대성을 없애리라.”  
 하니 겸한이 군을 거느려 장안으로 가니라.  
 이때 원수가 적진을 대하여 진육을 무수히 하되 호왕이 끝내 나오지 아니하거늘 원수 천자께 아뢰되,  
 “호왕이 소장의 살아남을 꺼려 접전치 아니하니 대군을 함세하여 짓밟고자 하나이다.”  
 상이 말하기를,  
 ㉠ “호왕이 무슨 비계 있는가 싶으니 잠깐 기다리라.”  
 할 차에 원문 밖에서 기별이 왔으되 무수한 오랑캐 장안을 범하여 사직이 조모\*에 있다 하거늘 상이 놀라 원수를 불러 말하기를,  
 “이놈이 여러 날 나지 아니하매 고이하게 여겼더니 장안을 범하였도다. 이제 호왕을 당적할 장수 없으니 이제 경이 가서 사직을 받들고 동군을 구완하여 잔명을 보존케 하라.”  
 하시니 원수 총망\* 중에 하직하고 일진 명마를 거느려 장안을 향하니라.  
 이때에 호장 체탐이 호왕께 고하되, 대성이 장안에 갔다 하거늘 호왕이 크게 기뻐하여 철기 삼천을 거느려 그날 밤 삼경에 명진에 다다르니 일진이 고요하여 인마 다 잠을 들었는지라 고함하며 지쳐 엄살하니 명진이 불의에 난을 만나매 제장 군졸의 머리 추풍낙엽일네라 뉘 능히 당하리요?  
 이때 명진 천자가 중군에서 취침하여 계시다가 함성소리 천지진동하거늘 놀라 장 밖에 나와 보니 화광이 충천한 가운데 일원 대장이 크게 외쳐 말하기를,  
 “명제 어디 있느냐?”  
 하며 달려 들어오니 본즉 이는 곧 호왕이라.  
 상이 대경하여 제장을 부르니 제장 군졸이 다 흩어지고 없는지라 다만 삼장\*을 겨우 찾아 일지병을 거느려 북문으로 달아나더니 날이 이미 밝으며 황강 강가에 다다르니 강촌 백성이 난을 피할 길이 없는지라.  
 상이 삼장을 돌아보아 가라사대,  
 “좌우에 태산 막혀 있고 앞에 황강이 있어 건널 길이 없고 호왕의 추병은 급하였으니 그 가운데 있어 어디로 가리요? 삼장은 힘을 다하여 뒤를 막으라.”  
 하시니 삼장과 군사가 말 머리를 돌려 호적을 대하여 마음을 둘 곳이 없더니 호왕이 달려와 삼장과 군사를 다 죽이고 명제는 함정에 든 범이라 어찌 망극지 아니하리요? 명제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여 말하기를,  
 “죽기는 서럽지 아니하되 사직이 오늘날 내게 와 망할 줄 알리요. 황천에 들어간들 태종 황제께 하면목으로 뵈오리요?”  
 하시고 슬피 울으실 새 호왕이 황제 탄 말을 찢러 거꾸러치니 상이 땅에 떨어지거늘 호왕이 창으로 상의 가슴을 겨누며 꾸짖어 말하기를,  
 “죽기를 서러워하거든 항서를 써 올리라.”  
 상이 총망 중에 대답하되,  
 “지필이 없으니 무엇으로 항서를 쓰리요?”  
 호왕이 크게 소리하여 말하기를,  
 “목숨을 아낄진대 용포를 떼고 손가락을 깨물라.”  
 하니  
 “차마 아파 못할네라.”

소리 나는 줄 모르고 통곡하시니 용의 울음소리가 구천에 사무치는지라 하늘이 어찌 무심하리요?

이때 원수 장안으로 가 호왕을 찾으니 호왕은 없고 겸한이 삼군을 거느려 왔거늘 원수 분노하여 겸한을 한칼에 베고 제군에게 하령하기를,

“이제 호왕이 나를 치우고 우리 대군을 범하고자 함이니 나는 필마로 가서 대군을 급히 구완할 것이니 제군은 따라오라.”

하고 달려가니 빠르기 풍우 같은지라.

대진을 향하여 오더니 홀연 공중에서 외쳐 말하기를,

“용부야, 대진으로 가지 말고 황강으로 가라. 지금 천자 강변에 끼꾸러져 호왕의 창끝에 명이 다하게 되었으니 급히 구완하라.”

하거늘 원수 황강으로 가며 분기충천하여 말하기를,

“앞에 큰 강이 가렸으니 건넌 길이 없는지라.”

때는 늦어 가고 분기는 울울하여 말더러 경계하여 말하기를, “네 비록 짐승이나 사람의 급함을 알지라. 물을 건네라.”

하니 청충마 그 임자의 충성을 모르리요? 고개를 들고 청천을 우러러 한소리를 벽력같이 지르고 강을 건너뛰니 이는 대성의 충심과 청충마 그 임자 아는 정을 하늘이 감동하사 건너게 함이라.

그제야 멀리 바라보니 상이 강변에 넘어졌는지라 원수가 우레 같은 소리를 벽력같이 지르며,

“호왕은 나의 임금을 해치 말라.”

하는 소리 천지진동하니 호왕이 황겁하여 미처 회마치 못하여 청충마가 호왕의 탄 말을 물고 대성의 칠성검은 호왕의 머리를 베어 말 아래에 떨어지느니라. 원수가 호왕의 머리를 창끝에 꿰어 들고 말에서 내려 강변에 다다르니 천자 기절하여 누웠거늘 원수 엎드려 아뢰기를,

“대성이 호왕을 죽이고 왔나이다.”

상이 혼미 중에 대성의 말을 들으시고 용안을 잠깐 들어보니 과연 대성이 호왕의 머리를 들고 엎드렸거늘 혼미 중에 일어나 대성의 손을 잡고 꿈인가 생신가 분별치 못할네라.

원수 여쭙기를,

“소신이 이제 반적 호왕을 죽였사오니 옥체를 진정하옵소서.”

상이 정신을 차려 가라사대,

“어느 사이에 호왕을 죽이고 짐의 잔명을 보전케 하였느냐? 돌아가 천하를 반분하리라.”

원수 천자를 모시고 본진에 돌아오니 상이 양천통곡하기를, “나로 말미암아 아까운 장졸이 원혼이 되었으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리요?”

행군하여 대연을 배설하사 장졸을 상사하시고 좌우더러 일러 말하기를,

“원수는 만고에 짝 없는 충신이라 일방 봉작\*으로 그 공을 갚을 길이 없어 천하를 반분하고자 하나니 제신들은 어떠하뇨?”

대성이 엎드려 아뢰기를,

㉠ “천하를 평정함이 폐하의 넓으신 덕이요 신의 공이 아니오매 천하를 반분하오면 일천지하에 두 천자 없사오니 소신으로 하여금 후세에 역명을 면케 하옵소서.”

- 작자 미상, 「소대성전」 -

\* 조모 : 어떤 일이 곧 결판되거나 끝장날 상황.

\* 총망 : 매우 급하고 바쁘다.

\* 삼장 : 세 명의 장수.

\* 봉작 : 제후로 봉하고 관작을 줌.

2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배경 묘사를 통해 해학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② 장면 전환을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드러낸다.
- ③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비극적 결말을 암시한다.
- ④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에 대해 논평한다.
- ⑤ 과거 사건과 현재 사건을 대비하여 갈등의 원인을 부각한다.

26.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호왕은 겸한이 군사를 거느리고 장안으로 가도록 지시했다.
- ② 천자는 장안을 범한 오랑캐를 물리치기 위해 대성을 보냈다.
- ③ 대성이 떠났다는 보고를 받은 호왕은 명진을 공격하였다.
- ④ 대성은 호왕에게 속았음을 장안에 도착하기 전에 알았다.
- ⑤ 본진으로 돌아온 천자는 장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였다.

27.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이 작품에서 소대성은 호국의 침략으로 위기에 처한 명나라를 지켜내는 인물로 제시된다. 탁월한 무공을 바탕으로 천상계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소대성의 영웅적 능력은 지배 계층의 무능과 대비를 이룬다.

- ① 호국의 침략으로 군사들이 희생되고 백성이 난을 겪는 상황에서 명나라가 위기에 처했음이 드러나고 있군.
- ② 호왕의 공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천자의 나약한 모습은 지배 계층의 무능함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군.
- ③ 공중에서 들리는 소리에 분기충천하는 소대성의 모습은 천상계의 질서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군.
- ④ 항서를 요구받고 쓰러져 기절한 천자와 극적으로 천자를 구출하는 소대성이 대비되면서 소대성의 영웅적 면모가 부각되고 있군.
- ⑤ 명을 위협하는 오랑캐를 물리치고 호왕을 제압하는 모습에서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소대성의 탁월한 능력이 나타나 있군.

28. ㉠과 ㉡을 비교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실행으로 인한 결과를 우려하며, ㉡은 실행을 위한 방안을 요구하며 상대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 ② ㉠은 추측에 근거하여, ㉡은 군신 간의 도리를 내세워 상대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 ③ ㉠은 자신의 공을 내세우며, ㉡은 상대에게 공을 돌리며 상대의 제안에 동의하고 있다.
- ④ ㉠은 단점을 중심으로, ㉡은 장점을 중심으로 상대의 제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⑤ ㉠은 유보적인 태도로, ㉡은 적극적인 태도로 상대의 제안을 수용하고 있다.



[29 ~ 3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푸른 담쟁이 헤치고 **독락당(獨樂堂)**을 지어 내니  
그윽한 경치는 견줄 데 전혀 없네.

㉠ 수많은 긴 대나무 시내 따라 둘러 있고  
만 권의 서책은 네 벽에 쌓였으니

왼쪽엔 안회 증삼, 오른쪽엔 자유 자하\*.

서책을 벗 삼으며 시 읊기를 일삼아  
한가로운 가운데 **깨우친 것을 혼자서 즐기**도다.

독락, 이 이름 뜻에 맞는 줄 그 누가 알리

사마온공 독락원이 아무리 좋다 한들

그 속의 참 즐거움 이 독락에 견줄쏘나.

진경을 다 못 찾아 **양진암(養眞庵)**에 돌아들어

바람 쐬며 바라보니 **내 뜻도 뚜렷하다**.

퇴계 이황 자필이 참인 줄 알겠노라.

**관어대(觀魚臺)** 내려오니 펼친 듯한 반석에 자취가 보이는 듯.

손수 심은 장송은 옛 빛을 띠었으니

변함없는 경치가 그 더욱 반갑구나.

㉡ 상쾌하고 맑은 기운 난초 향기에 든 듯하네.

몇몇 옛 자취 보며 문득 생각하니

우뚝한 낭떠러지는 바위 병풍 절로 되어

용면의 솜씨로 그린 듯이 벌여 있고

깊고 맑은 못에 천광운영\*이 어리어 잠겼으니

광풍제월\*이 부는 듯 비치는 듯.

**연비어약(燕飛어약)을 말없는 벗으로 삼아**

**독서에 골몰하여 성현의 일 도모**하시도다.

맑은 시내 비껴 건너 뉘시터도 뚜렷하네.

㉢ 물노라, 갈매기들아. 옛일을 아느냐.

엄자룡이 어느 해에 한나라로 갔단 말인가\*.

이끼 낀 뉘시터에 저녁연기 잠겼어라.

- 박인로, 「독락당」 -

\* 안회, 증삼, 자유, 자하: 공자의 제자들.

\* 천광운영: 하늘빛과 구름 그림자.

\* 광풍제월: 비가 갠 뒤의 맑게 부는 바람과 맑은 달.

\* 연비어약: 술개가 날고 물고기가 뛰는 뜻으로, 온갖 동물이 생을  
즐거움을 이르는 말.

\* 엄자룡이 ~ 갔단 말인가: 중국 후한의 엄광이 광무제가 내린 벼슬을  
거부하고 자연에 은거하였다는 고사를 이룸.

(나)

‘방우산장(放牛山莊)’은 내가 거쳐하고 있는 이른바 ‘나의  
집’에다 스스로 붙인 집 이름이다.

㉠ 집이란 물건은 고루거각이든 용슬소옥이든지\* 본디 일정  
한 자리에 있는 것이요, 떠메고 돌아다닐 수 없는 것이매 집  
이름도 특칭의 고유명사가 아닐 수 없으나 나의 방우산장은  
원래 특정한 장소, 일정한 건물 하나에만 명명한 것이 아니  
고 보니 옥척 수신 장구를 담아서 내가 그 안에 잠자고 일하  
며 먹고 생각하는 터전은 다 방우산장이라 부를 수밖에 없  
다. **산장**이라 했으니 산 속에 있어야만 붙일 수 있는 이름이  
로되 십리 둘레에 일점 산 없는 곳이 없고 보니 나의 방우산  
장은 심산에 있거나 시향에 있거나를 가리지 않고 일여한 산  
장이다. 이는 내가 본디 산에서 나고 또 **장차 산으로 돌아갈**  
**자이기 때문**이다.

기르는 한 마리 소야 있든지 없든지 방우\*라 부르는 것은 내

소, 남의 소를 가릴 것 없이 설핏한 저녁 햇살 아래 내가 올라  
타고 풀피리를 희롱할 한 마리 소만 있으면 그 소가 지금 어  
디에 가 있든지 내가 아랑곳 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집은 떠다니지 못하지만 사람은 떠돌게 마련이다. **방우산장  
의 이름에 값할 집**은 열 손을 넘어 끔게 된다. 어떤 때는 따듯  
한 친구의 집이 내 산장이 되었고 어떤 때는 차운 여관의 일  
실이 내 산장이 되기도 하였다. 그나 그뿐인가. 피난 종군의  
즈음에는 야숙의 담요 한 장이 내 산장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  
고 보면 **취와\***의 경우에는 저 억조 성좌를 장식한 무변한 창  
공이 그대로 나의 산장이 될 법도 하지 않는가. 실상은 나를  
바로 나이게 하는 **내 영혼이 깃들인 곳집**, 이 나의 육신이 구  
극에는 나의 산장이기도 하다.

방우산장에는 아직 한 장의 현판도 없다. 불행하게도 한 장  
의 현판을 걸었던들 방우산장은 이미 나의 집이 아니게 되었  
을 것이요, 나의 형터리도 없는 집 이름은 몇 번이든 바뀌졌을  
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 두려운 일은 곧 뒷날 내 죽은 뒤 어  
느 사람이 있어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 주노라는 제 **정성  
으로 방우산장이란 묘석을 내 무덤에다 세워 줄까** 저어함이다.

그때는 이미 나의 방우산장은 이 지상에서는 소멸되고 저  
지하의 한 이름 모를 나무뿌리에 새겨져 있을 것이다. 땅 위에  
남겨 놓고 간 ‘영혼의 새’가 깃들이는 곳 - 그 무성한 숲의 어  
느 한 가지가 방우산장이 될 것이다.

- 조지훈, 「방우산장기」 -

\* 고루거각이든 용슬소옥이든지: ‘높고 크게 지은 집’이든 ‘겨우 무릎이  
나 움지일 수 있는 몹시 좁고 작은 집’이든지.

\* 방우: 소를 놓아줌. 불교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소[牛]에 빗대어 이를  
찾아[심우(尋牛)] 기르는 것[목우(牧牛)]을 수행의 관건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방우’가 곧 ‘목우’임을 내세우는 것은 불교에 근거하면서도  
어디에도 구속당하지 않는 자유정신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음.

\* 취와: 술에 취하여 누움.

29.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여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자연의 불변성에 주목하여 인간사의 한계를 부각하고 있다.
- ③ 현실의 모순을 언급하며 과거 회귀적 지향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치밀한 관찰에 근거하여 다양한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역사적 사례를 제시하며 상황 극복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30.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공간의 외부와 내부에 대한 진술을 나란히 제시하여 화  
자가 받은 인상을 개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 감각적 심상과 비유를 결합하여 주변 경관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어질 내  
용을 이끌어내고 있다.
- ④ ㉠: 대조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가정을 통해 소망이 생전에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에 대  
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 <보기>를 참고하여 31번과 32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 보 기 >

(가)는 회재 이언적이 거처하던 독락당 및 후학 양성의 뜻을 드러낸 양진암 등을 다룬 박인로의 가사이다. 이 작품의 공간은 학문 수양의 공간과 그 주변의 자연 공간을 아우르고 있다. 화자는 이언적이 명명한 것으로 전해지는 이들 공간을 둘러보면서 그 명칭의 의미와 관련지어 자신의 소회를 드러낸다. 이처럼 공간의 명칭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방식은 (나)에서도 중요한 기반을 이루고 있다.

31.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에서 ‘깨우친 것을 혼자서 즐기’는 행위는 ‘독락당’이라는 명칭의 의미와 연결되면서 학문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의 성격을 부각하고 있다.
- ② (가)에서 ‘내 뜻도 뚜렷하다’는 진술은 ‘양진암’에 대한 것으로, 화자는 후학 양성에 뜻을 두었던 이언적에 대한 공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③ (가)에서 ‘연비어약을 말없는 벗으로 삼아/독서에 골몰’한다는 표현은 ‘관어대’와 관련된 것으로, ‘성현의 일’을 이루지 못한 화자의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나)에서 ‘내가 본디 산에서 나고 또 장차 산으로 돌아갈 자이기 때문이다’는 ‘산장’이라는 명칭의 근거와 함께 ‘나가 귀의하고자 하는 공간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 ⑤ (나)에서 ‘방우산장의 이름에 값할 집’은 궁극적으로 ‘내 영혼이 깃들인 곳집’과 연결되면서, 공간의 명칭이 정신적 지향의 표상임을 암시하고 있다.

32. ‘공간’과 ‘명칭’의 관계를 중심으로 (가)와 (나)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간의 명칭이 변화하는 과정이 제시되고 있다.
- ② (나)에는 명칭이 지시하는 공간이 하나의 물리적 실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나타나 있다.
- ③ (가)와 (나)의 공간은 명명 과정에서 다수의 인정을 받는 단계를 거쳐 왔다.
- ④ (가)와 달리 (나)에서는 공간의 외양과 명칭의 근거가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
- ⑤ (나)와 달리 (가)에서는 공간에 대한 작가의 경험이 명칭 지정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33~37]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약은 생체의 작용에 영향을 미쳐 생물학적 효과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약은 생체에서 수용체와 결합하여 유익 작용 및 유해 작용을 나타내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이 경우 약은 생체의 리간드와 유사한 화학적 분자 구조를 가진 성분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성분으로 인해 약은 생체 내에서 리간드로 기능한다. 여기서 리간드란 수용체와 결합하여 신경 자극이나 화학 반응과 같은 생물학적 반응을 촉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생체 내에서 수 [A]용체와 친화성이 높은 리간드가 결합하면, 리간드와 결합한 수용체의 작용에 의해 생체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수용체에 의해 리간드의 구조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이후의 생물학적 반응이 유도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약은 특정 수용체와 결합할 수 있는 리간드를 인위적으로 생체에 증가 시킴으로써 리간드와 결합한 수용체의 수가 일정 시간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이 되게 하여 효과를 낸다고 할 수 있다.

대체로 약은 병원체에 작용하거나 생체에 직접 작용하는 방식으로 생물학적 효과를 낸다.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의 치료에 활용되는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 등은 전자의 방식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박테리아에 의한 질병 치료에 사용되는 ㉠ 설파제는, 인간과 박테리아가 모두 대사 과정에서 엽산이라는 물질을 필요로 하는데 엽산을 섭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인간과 달리 박테리아는 엽산을 스스로 만들어야만 한다는 점을 이용한다. 박테리아는 엽산을 만들기 위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데, 파라아미노벤조산(PABA)이 그 수용체와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엽산이 된다. 박테리아에 감염된 환자가 설파제를 복용하면 설파제는 체내에서 화학적 변화를 거쳐 PABA와 분자 구조가 매우 유사한 설파닐아마이드가 되어 PABA가 결합할 수용체와 먼저 결합한다. 이로 인해 박테리아는 엽산을 만들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된다.

항바이러스제는, 스스로는 증식하지 못하고 다른 세포에 기생하여 DNA 복제 과정을 거치며 증식하는 바이러스의 특성을 활용하여,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의 증식을 막는 방식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도 한다. ㉡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를 포함한 항바이러스제가 이러한 방식의 약에 해당한다.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와 유사하지만,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가 세포의 DNA나 RNA의 수용체와 결합하면 결과적으로 DNA 복제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와는 쉽게 결합하지만 감염되지 않은 세포와는 잘 결합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들이 더 이상 증식하지 못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한다.

한편 신경작용제는 신경전달물질의 작용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사람의 정신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생물학적 효과를 내는 약이다. 하나의 뉴런에서 발생한 전기 신호는 뉴런 말단에 도달하여 신경전달물질을 분비하게 하고, 이러한 신경전달물질은 연결한 다른 뉴런에 존재하는 수용체에 화학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연결한 뉴런 간에 신호를 전달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우울증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은, 보통 후(後)연접 뉴런 수용체에서 기능을 다하고 전(前)연접 뉴런에 재흡수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뉴런 간 연결 틈새에서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의 농도가 낮아지면 우울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

저 있다. [항우울제]는 연접 틈새에서 이들 신경전달물질의 부족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약효를 낸다. TCA 항우울제는 전연접 뉴런의 수용체와 결합하여 신경전달물질의 재흡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SNRI 항우울제는 신경전달물질의 재흡수를 억제하거나 후연접 뉴런의 수용체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연접 틈새에서 신경전달물질의 농도가 높아진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대부분의 약들은 약효가 여러 가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하면 이들 약의 일차적인 약효는 서로 다를지라도 이차적인 약효는 같을 수 있어, 공통되는 이차적인 약효가 한층 커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약들이 서로 도와 약효를 높이는 효과를 상승효과라고 한다. 한편 약을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수용체의 민감도가 떨어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기존과 동일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더 많은 약을 필요로 하게 되는 내성이 생길 수 있다.

3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약을 두 종류 이상 함께 복용하면 상승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 ② 약은 생체의 신경 자극이나 화학 반응을 조절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 ③ 약은 생체에서 수용체와 결합하여 유익 작용과 유해 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
- ④ 약은 생체의 리간드와 유사한 물질을 포함하여 생체의 생물학적 반응을 조절할 수 있다.
- ⑤ 약은 생체의 대사 작용에 관여하는 물질을 제거함으로써 병원체를 직접적으로 죽게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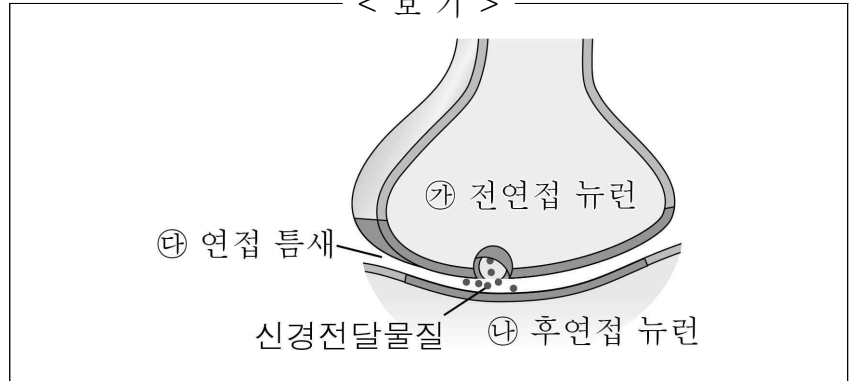
34. [A]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생체에서 리간드에 의해 수용체의 구조에 변화가 일어나면 세포의 기능에 변화가 일어난다.
- ② 생체에서 생물학적 반응이 일어나면 수용체와 리간드는 동일한 화학적 분자 구조로 변화된다.
- ③ 약을 복용하면 리간드와 결합된 수용체의 수가 일정 시간 동안 복용 전보다 많은 정도가 유지된다.
- ④ 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약이 생체의 리간드와 친화성이 높은 리간드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⑤ 수용체와 동일한 화학적 분자 구조를 가진 물질을 포함한 약은 생체에서 생물학적 효과를 더 크게 일으킨다.

35.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생체 내에서 화학적 변화를 거친 후 약효를 발휘한다.
- ② ㉠은 병원체가 대사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물질의 생성을 방해하여 병원체의 사멸을 유도한다.
- ③ ㉡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의 DNA 복제 과정에 개입하여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한다.
- ④ ㉠과 ㉡ 모두 병원체와 병원체에 감염될 수 있는 생체의 차이를 활용하여 생물학적 효과를 낸다.
- ⑤ ㉠과 ㉡ 모두 병원체와 생체가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질을 사용하여 병원체의 확산을 억제한다.

36. <보기>는 [항우울제]의 작용을 이해하기 위한 그림이다.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보통 ㉠에서 분비된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은 ㉡에 작용한 후 다시 ㉠로 재흡수된다.
- ② SNRI 항우울제는 ㉡에 지속적으로 흡수됨으로써 ㉠에서 신경전달물질의 농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낸다.
- ③ 우울증의 치료를 위해 ㉠에서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의 농도가 높아지도록 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 ④ ㉡에서 신경전달물질의 농도가 높은 상태로 장기간 유지되면 수용체의 민감도가 떨어지게 된다.
- ⑤ 항우울제는 ㉠나 ㉡의 수용체와 결합하여 우울증이 발생하는 원인을 완화하는 효과를 낸다.

3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생체의 리간드인 히스타민은 알레르기와 염증의 발생, 위산 분비 등에 모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항히스타민약으로 개발된 메피라민은 알레르기와 염증에는 효과가 있지만 위산 분비 조절에는 거의 효과가 없었다. 이에 연구자들은 히스타민과 친화성을 갖는 두 종류 이상의 수용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위산 분비를 조절하는 새 항히스타민약을 개발하였다.

- ① 새 항히스타민약을 개발한 연구자들은 히스타민이 알레르기와 염증 발생에 관여하는 수용체 및 위산 분비에 관여하는 수용체 모두와 친화성을 갖는다고 가정했을 것이다.
- ② 메피라민은 위산 분비에 관여하는 수용체보다 알레르기와 염증 발생에 관여하는 수용체와 친화성이 높을 것이다.
- ③ 메피라민과 새 항히스타민약은 모두 히스타민과 유사한 화학적 분자 구조를 가진 성분을 포함할 것이다.
- ④ 메피라민과 새 항히스타민약은 모두 생체에서의 위산 분비 조절을 일차적인 약효로 가질 것이다.
- ⑤ 새 항히스타민약은 메피라민보다 위산 분비에 관여하는 수용체와 더 높은 친화성을 가질 것이다.



[38 ~ 4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가격 변화에 의해 균형을 회복한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가격 하락으로 수요량이 늘고 공급량이 줄면서 균형이 회복된다. 이러한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과 관련하여 거시 경제학에서는 시간대를 단기와 장기로 구분한다. 단기는 가격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 불균형이 지속되는 시간대이며, 장기는 신축적 가격 조정에 의해 시장 균형이 달성되는 시간대이다. 그런데 단기의 지속 시간, 즉 시장 불균형이 발생한 이후 다시 균형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들이 존재해 왔다.

1930년대 이전까지 경제학의 주류를 이루었던 ㉠ 고전학파는, 시장은 가격의 신축적인 조정에 의해 항상 ㉡ 균형을 달성한다고 보았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의 자기 조정 능력을 신뢰하는 입장으로, 이에 따르면 단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가격이 변화하여 시장은 균형을 회복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전학파는 호황이나 불황이 나타나는 경기 변동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하지만 케인즈는 고전학파의 주장과 달리 장기에는 가격이 신축적이지만 단기에는 ㉢ 경직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오랜 경기 침체와 대규모의 실업이 발생했던 1930년대 대공황의 원인이 이러한 시장의 가격 경직성에 있다고 주장했다. 가격 경직성이 심할수록 소비나 투자 등 총수요\*가 변동할 때 극심한 경기 변동 현상이 유발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 시장에서의 가격인 임금이 경직적인 경우 기업의 노동 수요 감소가 임금 하락으로 상쇄되는 대신 대규모 실업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케인즈의 주장은 ㉣ 케인즈학파에 의해 발전된다. 케인즈학파는 경기 변동을 시장 균형으로부터의 이탈과 회복, 즉 불균형 상태와 균형 상태가 반복되는 현상으로 보고, 총수요 변동이 유발한 불균형 상태가 가격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들은 정부가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 등 경기 안정화 정책을 통해 경제의 총수요를 ㉤ 관리함으로써 경기 변동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격 경직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이는 손’을 통해 시장의 균형이 회복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1950년대 이후 컴퓨터의 발달과 통계학의 발전으로 거시 계량 모형이 개발되어 경기 예측과 정책 효과 분석에 이용됨에 따라 케인즈학파는 정책을 통해 ㉥ 경기 변동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케인즈학파는 이후 여러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1970년대, ㉦ 새고전학파는 케인즈학파의 거시 계량 모형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다. 케인즈학파의 거시 계량 모형은 소비와 소득, 금리와 통화량 등 거시 경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가정된 방정식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러한 방정식의 계수는 과거의 자료를 통해 통계적인 방법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정보가 전해지면 경제 주체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정보에 추가된 정보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 기대를 형성하고 이에 따라 반응을 바꾸므로, 방정식의 계수 혹은 방정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새고전학파는 케인즈학파가 거시 경제 변수 간의 관계를 임의로 가정하고 과거 자료만으로 이 관계를 추정하려 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바탕으로 거시 경제 현상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시장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가격이 조정되는 속도는 매우 빠르다는 고전학파의 전제를 유

지하면서, 경기 변동을 균형 자체가 변화하는 현상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총수요 변동이 아닌 기술 변화가 지속적인 경기 변동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응해 케인즈학파는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을 미시적으로 분석하는 새고전학파의 방법론을 받아들여 새케인즈학파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새케인즈학파는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 선택을 한 결과로 가격 경직성이 나타난다고 설명함으로써,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으로 기대를 형성하더라도 가격 경직성으로 인해 경기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가격 경직성의 근거로 ‘메뉴 비용 이론’과 ‘효율 임금 이론’을 제시했다. 메뉴 비용이란 기업이 가격을 변화시킬 때 발생하는 유·무형의 비용을 지칭한다. 메뉴 비용 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제품 가격을 변화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과 메뉴 비용을 비교하여 가격을 [A] 변화시키며, 이에 따라 제품 시장의 가격 경직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효율 임금은 노동자의 생산성을 유도하는 임금을 말하는데, 효율 임금 이론은 노동자의 생산성이 임금을 결정한다는 전통적인 임금 이론과 달리 임금이 높을수록 노동자의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노동자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자의 이직과 태만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새케인즈학파는 케인즈학파가 임의로 가정하였던 가격 경직성의 근거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면서, 총수요 관리 정책은 여전히 효과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총수요: 한 나라의 모든 경제 주체들이 소비 또는 투자의 목적으로 사려고 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총합.

38.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고전학파와 새고전학파는 경기 변동의 존재 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 ② 새고전학파는 시장에 나타난 가격 경직성을 미시적 분석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③ 케인즈는 노동 시장에 나타나는 임금 경직성이 극심한 고용량의 변화를 방지한다고 보았다.
- ④ 케인즈는 단기에는 가격이 신축적으로 변화해도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없다고 보았다.
- ⑤ 새케인즈학파는 메뉴 비용의 존재로 인해 제품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는 속도가 빠르다고 보았다.



39. <보기>의 '모형'에 대한 ㉠, ㉡의 해석을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그림>은 총수요 변동에 따른 국민 총소득 변화를 나타낸 모형이다.  $Y^*$ 는 장기 균형 국민 총소득 수준을, AD 곡선은 총수요를 나타낸다. 총수요가 증가하면 AD 곡선이 우측으로, 감소하면 좌측으로 평행 이동한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 총수요가  $AD_0$ 이고 물가가  $P_0$ , 국민 총소득이  $Y^*$ 인 상태에서 총수요가  $AD_2$ 로 증가한 경우, 총수요 증가에 따라 물가가  $P_2$ 까지 상승하면 국민 총소득은  $Y^*$ 로 동일하지만, 물가가  $P_0$ 에 고정돼 있으면 국민 총소득은  $Y_2$ 로 증가한다. 이때 국민 총소득이  $Y^*$ 보다 큰 경우는 호황을,  $Y^*$ 보다 작은 경우는 불황을 나타낸다.

(단, 총수요는  $AD_1$ 과  $AD_2$  사이에서만 변동한다고 가정한다.)

<그림>

- ① ㉠: 호황이나 불황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AD 곡선이 이동하더라도 국민 총소득이  $Y^*$ 로 일정할 것이다.
- ② ㉠: 시장은 항상 균형 상태에 있으므로, AD 곡선이 이동하더라도 물가가  $P_0$ 이고 국민 총소득이  $Y^*$ 인 장기 균형이 항상 성립할 것이다.
- ③ ㉡: 단기에는 가격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총수요 변동이 시장 불균형을 유발하므로, AD 곡선이 이동할 때 물가는  $P_1$ 과  $P_2$  사이의 폭보다 작은 폭으로 변화하여 국민 총소득은  $Y^*$ 를 이탈할 것이다.
- ④ ㉡: 가격 경직성이 심할수록 총수요 변동에 따라 극심한 경기 변동이 유발되므로, 물가가 완전히 경직적이라면 AD 곡선이 이동할 때 물가가  $P_0$ 에 고정되어 국민 총소득의 변동성은  $Y_1$ 에서  $Y_2$ 까지 나타날 것이다.
- ⑤ ㉡: 가격 경직성이 존재하더라도 정부가 '보이는 손'을 통해 경기 변동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경기 안정화 정책이 유효하다면 물가가  $P_0$ 에 고정되더라도 국민 총소득이  $Y^*$ 로 일정할 수 있을 것이다.

40. <보기>의 '경제학자 갑'의 정책 제안에 대해 ㉢이 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경제학자 갑은 소득과 통화량이 늘어날수록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소비 예측 모형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K국의 지난 10년간의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모형의 계수를 추정하였다. 모형의 분석 결과, 갑은 통화량이 증가한 경우 다음 달의 소비가 증가한다는 결론을 도출한 뒤,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K국 정부에 제안하였다. K국 정부는 갑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2020년 4월 1일에 확장적 통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단, 현재는 2020년 3월 12일이며, K국은 매년 12월 31일에 해당 시점의 통화량을 발표한다.)

- ① K국의 확장적 통화 정책이 2019년의 통화량에 대한 K국 국민들의 합리적 기대 형성에 영향을 미쳐 K국 국민들의 반응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 ② K국 정부가 확장적 통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 통화량에 대한 K국 국민들의 예상이 달라짐에 따라 정책 효과 분석도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 ③ 확장적 통화 정책으로 인해 K국의 통화량이 변화할 경우, 2020년 이전의 자료는 배제한 채 소비의 변화를 예측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 ④ 2020년 4월 1일에 확장적 통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2020년 12월 30일까지는 K국 국민들의 소비가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 ⑤ K국 정부의 인위적인 통화량 조절로 유발된 총수요 변동이 불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41. [A]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업이 이윤 추구를 위해 제품 가격과 임금을 결정한 결과로 시장에 가격 경직성이 나타날 수 있다.
- ②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으로 기대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총수요 관리 정책이 경기 변동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없다.
- ③ 기업이 공급자로 참여하는 제품 시장과 수요자로 참여하는 노동 시장에서의 기업의 행동 차이로 인해 시장의 가격 경직성이 제거될 수 있다.
- ④ 메뉴 비용의 크기가 클수록 제품 가격의 변동성 역시 커진다는 것을 밝힐 수 있다면, 제품 시장에 존재하는 가격 경직성의 근거를 입증할 수 있다.
- ⑤ 기업이 노동 시장의 균형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면, 노동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더라도 임금이 하락할 수 있다.

42. ㉠ ~ ㉢을 문맥상 바꿔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고
- ② ㉡: 즉시 바뀌지 않는다고
- ③ ㉢: 적절한 수준으로 변화시킴으로써
- ④ ㉠: 시장 균형을 없앨 수
- ⑤ ㉢: 미래를 예상하고

[43 ~ 4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달은 밝고 당신이 하도 기루었습니다\*  
자던 옷을 고쳐 입고 뜰에 나와 퍼지르고 앉아서 달을 한참 보았습니다

달은 차차차 당신의 얼굴이 되더니 넓은 이마 둥근 코 아름다운 수염이 역력히 보입니다  
간 해에는 당신의 얼굴이 달로 보이더니 오늘 밤에는 달이 당신의 얼굴이 됩니다

당신의 얼굴이 달이기에 나의 얼굴도 달이 되었습니다  
나의 얼굴은 그믐달이 된 줄을 당신이 아십니까  
아아 당신의 얼굴이 달이기에 나의 얼굴도 달이 되었습니다  
- 한용운, 「달을 보며」 -

\* 기루었습니다: 그리웠습니다.

(나)  
결국 남쪽 악양 방면으로 길을 꺾었다  
하루 종일 해가 들었다  
밥을 짓고 국 끓이며  
어쩌다 생선 한 토막의 비린내를 구웠으나  
밥상머리 맞은편  
내 뼈를 발라 살점 없어줄 사람의  
늘 비어 있던 자리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따금 아직도 낯선 아랫마을 밤 개가  
경경거리며 그 부재의 이유를 묻기도 했다  
별들과 산마을의 불빛들은  
결코 나뉠 수 없는 우주의 경계로 인해  
밤마다 한 몸이 되고는 했다  
부럽기도 했다 해가 바뀔수록  
검던 머리 더욱 희끗거리고  
희끗거리며 날리는 눈발을 봐도  
점점 무심해졌다  
겨울바람이 처마 끝을 폴짝 뒤흔들다 간다  
아침이 드는 창을 비워두는 것은 옛 버릇이나  
무덤을 앞둔 여우들이 그러했듯이  
나 또한 북쪽 그리운 창을 향해 머리를 높히고  
길고 먼 꿈길을 청한다  
- 박남준, 「이사, 악양」 -

43.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동일한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자연을 묘사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청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연쇄적 표현으로 역동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44. (가), (나)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는 ‘하도’와 ‘한참’이 연결되면서, 감정의 크기와 행위의 지속 시간이 조용하고 있다.
- ② (가)에서는 ‘차차차’와 ‘역력히’가 연결되면서, 외부 사물에 투영된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 ③ (나)에서는 ‘어쩌다’와 대비되는 ‘늘’을 통해, 변함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이 강조되고 있다.
- ④ (나)에서는 ‘이따금’과 ‘아직도’의 대비를 통해, 상황의 변화 가능성이 암시되고 있다.
- ⑤ (나)에서는 ‘더욱’과 ‘점점’이 연결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와 (나)는 모두 대상의 부재에 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가)의 화자는 부재하는 대상과 재회하기를 소망하여, 자연물을 매개로 대상과의 합일을 바란다. (나)의 화자는 부재하는 대상의 빈자리를 느끼며 살아가는 가운데, 자연물 간의 합일을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 ① (가)의 화자는 ‘뜰’에 앉아 밝은 ‘달’을 보며, (나)의 화자는 밥상에 놓인 ‘생선 한 토막’을 보며 대상의 부재를 느끼고 있군.
- ② (가)에서는 ‘넓은 이마 둥근 코 아름다운 수염’으로, (나)에서는 ‘내 뼈를 발라 살점 없어줄 사람’으로 대상이 표현되고 있군.
- ③ (가)의 화자는 ‘간 해’의 경험을 ‘오늘 밤’과, (나)의 화자는 ‘아랫마을 밤 개’가 짓던 상황과 ‘겨울바람’이 ‘폴짝’이는 현재를 대비하여 재회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고 있군.
- ④ (가)의 화자는 ‘당신의 얼굴이 달이기에’ 자신의 얼굴도 ‘달’이 된다고 표현함으로써, 자연물을 매개로 대상과 합일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⑤ (나)의 화자는 ‘밤마다 한 몸이 되’는 ‘별들과 불빛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처지와 달리 합일을 이루는 자연물에 대한 부러움을 드러내고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